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임수진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u-Jin Lim(sujinlim429@honam.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모델을 설정하였다. 5개 대학의 1-4학년 대학생 307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년이나 계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장벽이 증가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졌다. 또한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더 적은 영향을 주었다. 진로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중심어 : | 진로장벽 |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t was established the study modeling which shows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questionnaire has carried out for 307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findings were follow: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o sex. but there are n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o grade and affiliation. Career barriers has significant influenced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more they had career barriers, the less they ha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re exis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the more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keyword : | Career Barriers |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 본 연구는 호남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8월 01일

수정일자 : 2017년 08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8월 22일

교신저자 : 임수진, e-mail : sujinlim429@honam.ac.kr

I. 서론

교육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7년부터 대학생의 진로, 취업지원현황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대학과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조직 및 인력 등의 인프라와 교수의 진로교육의 인식 및 수행수준, 학생의 진로 계획, 진로준비 및 역량 등을 측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학의 구조개혁평가 지표에서도 학생을 위한 지원에서 진로지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대학생의 진로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와 준비뿐만 아니라 대학생 개인의 삶에서도 진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진로문제'로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의 내용 중 진로가 가장 높았다[3]. 진로문제 다음으로 학업과 성적, 대인관계가 나타났다[4]. 그리고 휴학 이유로도 진로문제, 자격증 시험이나 고시준비가 많았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심리검사의 주제 역시 진로관련 검사가 가장 원하는 영역이었다[5]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이 아닌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이후 더욱 방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대학생들의 전과, 자퇴, 편입, 휴학, 졸업유예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4]. 졸업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퇴사, 단기이직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확대되기도 한다[7].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 대학생의 진로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들의 진로관련연구는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 행동, 진로성숙,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8]. 선행연구들은 진로성숙, 진로발달,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6][9][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였다[11].

Betz와 Voyten[12]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와 높은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Betz와 Hackett [13]은 진로선택에서 성향과 환경의 단순한 조합이 아닌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후 Lent, Brown & Hackett[14]는 사회인지진로이론(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의 진로결정 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목표수립과 같은 행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메타분석한 이미진[15]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은 매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렇게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향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 Making Self-Efficacy)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 된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활동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17][18].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성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성숙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19-21] 높은 진로포부를 가지고[22][23], 진로탐색행동 [24] 및 진로준비행동

[10][25][26]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행동을 설명하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일인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진로결정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한 진로발달과 진로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2. 진로장애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으로 맥락적 변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적 변인 가운데 진로장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진로장애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27]. 또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개인의 환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나 조건을 포함해 정의되어진다[28].

초기의 진로장애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진로장애를 주로 다루었지만 Bandura[29]의 사회인지이론으로 진로를 설명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SCCT)[27] 이후에 진로장애는 여자 대학생 뿐 아니라 남자 대학생들의 진로행동도 설명하고 있다.

진로장애는 진로관련 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회피하게 만들며[17],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28][29]을 주고, 또한 진로준비행동에도 부적인 영향[30][3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wanson과 Daniels[32]의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와 진로미결정 사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Luzzo[33]의 연구에서도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에 대한 통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진로장애는 진로관련 행동을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진로장애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 [31][34-36]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진로장애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주요한 예측변

인임을 확인하였다[37][3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간의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을 확인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 진로장애와 같은 배경 맥락적 변인이 진로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데 관여하는 요소를 학습과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14]. 경험요소는 개인이 지각하는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지적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39] 일종의 완충기제의 역할로 다양한 위기와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력을 증대 시키는 기능을 한다[40].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선택과 취업이라는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행복감을 증가시키고[41], 우울을 완화시키는 역할[42]을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한 대학생일수록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친구들의 심리적 지지는 진로결정과정에서의 탐색확장, 위협감수, 사회적 숙달감 등을 촉진시켰다[44]. Cohen & Hoberman[39]은 사회적 지지를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 지지와 해결과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적지지, 해결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서적지지, 그리고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평가적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포부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켰다[45].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46-49].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정보수집하며 미래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였다[50]. 이렇게 사회적 지지는 진로 관련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성별과 학년 요인이다. 박용두, 이기학[38]에서는 학년에 따라 진로장벽을 다르게 지각하였고 김은영[54]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성식[55]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도 학년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성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경[56]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성별과 관련한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면 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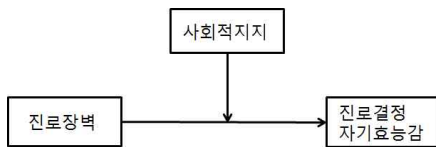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4년제 대학 5 곳에 다니는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의 목적과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배포, 수거하였다. 교양과 전공수업을 듣는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H 대학의 연구윤리 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수거된 321부의 설문 중 무응답과 중심으로부터 지나치게 떨어진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7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65명, 여학생이 142명이었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92, 2학년이 87명, 3학년이 58명, 4학년이 70명 이었다.

2. 측정도구

2.1 지각된 진로장벽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 이기학[57]이 개발한 ‘직업결정을 방해하는 척도’ 중에서 외적 장애와 사회적 인식부족의 요인을 제외한 내적진로장벽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내적진로장벽 척도는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부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8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탁진국, 이기학[57]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우유부단한 성격, 0.82, 직업정보부족, 0.89, 자기명확성 부족, 0.88, 필요성 인식부족 0.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선 각각 0.85, 0.92, 0.89, 0.85 로 나타났으면 전체 신뢰도계수는 0.89였다.

2.2 사회적지지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Cohen와 Hoberman(1983)의 사회적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를 박지원[58]이 변안하고 황윤경[5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부모나 친구집단등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 지를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있으며,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황윤경[59]에서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지지, 0.93 평가적 지지, 0.93 정보적 지지, 0.93 물질적지지 0.9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선 각각 0.95, 0.91. 0.89. 0.95로 나타났으면 전체 신뢰도계수는 0.91이었다.

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1]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50문항을 Betz와 Voyten[12]이 25문항의 단축한 것CDMSE-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진[6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완수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25문항이고 이은진[60]의 연구에서는 10점 척도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이은진[60]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자기평가 0.83, 직업정보수집 0.81, 목표설정 0.85, 계획수립 0.84, 문제해결 0.74 였지만 본 연구에선 각각 0.89, 0.91. 0.87, 0.94, 0.82로 나타났으면 전체 신뢰도계수는 0.89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

를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성별 및 학년, 전공계열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뒤에 실시하였다. 기본가정중에 변량의 정규분포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확인하였고,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 Cook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성확인을 위한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였다. 기본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Baron과 Kenny[61]의 제안에 따라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Aiken과 West[62]가 제안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1SD 에 해당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통계 패키지는 SPSS for Window 22.0 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및 상관분석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학년, 계열에 따른 차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N = 307)

	성별		학년				계열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경영	이공	보건	기타
N	165	142	92	87	58	70	82	88	60	53	23
M	68.951	65.479	67.619	67.023	68.966	66.043	68.325	67.046	66.517	65.604	71.087
SD	11.033	9.720	10.950	11.108	9.371	10.347	9.739	10.877	11.589	9.007	12.559
	$F = 1.954^{**}$		$F = .855$				$F = 1.374$				

* p<.05 ** p<.01 *** p<.001

평균은 68.951였고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65.479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_{(1,512)}=10.488, p<.001$).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67.619, 2학년은 67.023, 3학년은 68.966, 4학년은 66.043이었다. 계열별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인문사회계열, 경영계열, 이공계열, 보건계열, 기타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구하였다.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87, p<.001$),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87, p<.001$).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539, p<.001$).

표 2. 각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효능감
진로장벽	-	-.353**	-.632**
정서적지지	-.349**	.952**	.374**
평가적지지	-.351**	.942**	.402**
정보적지지	-.298**	.935**	.377**
물질적지지	-.319**	.901**	.366**
사회적지지	-.353**	-	.4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32**	.406**	-
평균	46.6840	95.1954	67.6840
(표준편차)	(10.99797)	(15.05179)	(10.99797)

*** $p<.001$, ** $p<.01$, * $p<.05$

2.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

다변량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확인하였다. 먼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랐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d값이 2에 가깝게 나와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점검하였는데 10을 넘지 않았다. 변량의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성별 효과

성별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진로장벽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장벽과 성별을 더미코딩하여 상대적 크기를 확인해본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진로장벽과 성별에서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B	SE B	β	t	B	SE B	β	t
진로장벽	-.607	.043	-.632	-14.233***	-.597	.043	-.621	-13.937***
성별					1.808	.943	.085	1.917
	$R^2 = .399$				$R^2 = .406$			
	$F = 202.571***$				$F = 104.010***$			

*** $p<.001$, ** $p<.01$, * $p<.05$

2.2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지 즉,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인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다음으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F_{(3,307)}=82.554, p<.001$), 45%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였을 때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F_{(3,307)}=86.395, p<.001$), 설명력은 8% 증가한 53.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Aiken과 West[62]의 방식에 따라 조절효과가 나타났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3.473	1.196	.164	2.904**	2.386	.917	.113	2.602*	2.031	.847	.096	2.398*
진로장벽					-.517	.044	-.538	-11.653***	-.498	.041	-.518	-12.134***
사회적지지					.158	.032	.225	4.893***	.201	.030	.286	6.621***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013	.002	-.296	-7.371***
	$R^2 = .027$ $F = 8.434**$				$R^2 = .450$ $F = 82.554***$				$R^2 = .534$ $F = 86.395***$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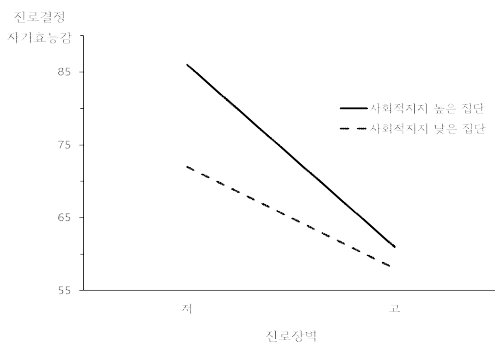


그림 2.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도 진로장벽이 낮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지만 더 적은 영향을 받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진로관련 연구에서 핵심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 성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진로장벽에 대해 여학생들이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은경[56]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는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성별의 차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요인을 통제하고 성별의 차이를 확인했을 때 성별이 더 이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학생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높게 지각된 진로장벽은 스스로가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년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29], 진로 준비행동[10]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55].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은 실제적인 취업을 준비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결정수준은 증가하지만 특정한 수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효능감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년에 따라 진로장벽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38][54]는 진로장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학년에 의한 차이를 보일수도 있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학년, 진로장벽과의 관계는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성별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통제하고 예언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연구되었던 것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이다.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선행연구들[28][33-3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진로장벽을 높이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이를 극복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숙[18]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장벽에 대해서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 부적관계는 확실하지만 인과관계는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오은주[31]는 진로장벽이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의 맥락변수로서 적절하며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적 추론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나현과 이기학[9]도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선행연구[46][47][49][50]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진로문제 역시 부모, 교수, 친구의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진로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을 때, 효능감이 높아져서 더욱 진로 및 취업관련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장벽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또한 진로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더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더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보다는 진로장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용두, 이기학[38]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여성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진로장벽을 더 낮게 지각해서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보면 성별,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는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을 위해서 또한 구체적인 진로 관련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28][38]에서 외적인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내적인 진로장벽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진로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명확성을 증가시킨다면 우유부단한 성격도 감소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직업정보를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진로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 교수, 선후배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은 진로

장애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9]이다.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진로관련 스트레스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40]. 내적 진로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진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대학생의 진로 성숙, 진로발달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함의가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앞서 언급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모형이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SCCT) 이론에서 진로장벽을 맥락변인으로 설정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8]. 변인의 인과성은 연구들이 축적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면서 정립 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한점은 대학생의 진로에 관련 변인 중에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모두 심리내적인 변인이다. 이러한 심리내적 태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로관련 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태도와 대학생의 실제 진로관련행동이나 취업행동을 측정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598>.
 [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W&s=moe&m=02&opType=N&boardSeq=56967>
 [3] <http://snucounsel.snu.ac.kr/board/boardDataView>.
 [4]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5학년도 서울캠 퍼스 신입생의 대학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학

생생활연구,” 제31호, pp.1-41, 2014.
 [5] <http://counsel.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2468&siteId=counsel&menuUIType=top>.
 [6] 이종찬,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제3권, 제1호, pp.40-66, 2013.
 [7] 이종찬, 홍아정,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교육학연구, 제50권, 제3호, pp.177-206, 2012.
 [8] 김수임, 김창대,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제10권, 제3호, pp.1573-1591, 2009.
 [9] 유나현, 이기학,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241-2255, 2009.
 [10] 임수진,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2권, 제3호, pp.349-363, 2015.
 [11] R. Taylor and B.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pp.63-81, 1983.
 [12] N. E. Betz and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179-189, 1997.
 [13] N. E. Betz and G. Hackett,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5, pp.399-410, 1981.
 [14] R. W. Lent, S. T. Brown, and G. Hacket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 & Associates(4th ed.), Career choice and

- development, pp.255-31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2.
- [15] 이미진,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의 매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6]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 [17]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18]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9] 김민정, 이희경,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 제5호, pp.1811-1830, 2014.
- [20] 박주현, 유성경,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2호, pp.543-560, 2012.
- [21] 이상희,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 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375-392, 2007.
- [22] 최수미, 강유림, "부모지각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4호, pp.2291-2306, 2013.
- [23] 강유선, 조은애, 김양희, "학업우수 고등학생이었던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활연구*, 제17권, 제2호, pp.1-16, 2011.
- [24] 이옥인, 임양미, 유장순, "장애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125-141, 2016.
- [25] 주영주, 고경미, 정유진,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pp.65-83, 2015.
- [26] 황지영, 고미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제34권, 제2호, pp.135-150, 2015.
- [27]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No.1, p.36, 2000.
- [28] J. L. Swanson and M. B. Witke,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5, No.4, pp.443-467, 1997.
- [28] 고미나, 박재황,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2012.
- [29] A. Bandura,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Vol.41, No.12, pp.1389-1391, 1986.
- [29] 손은령,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제2권, 제2호, pp.251-262, 2001.
- [30] 김민정,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016.
- [31] 오은주,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4호, pp.31-58, 2014.
- [32] J. L. Swanson and K. L. Daniel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995.
- [33] D. A. Luzz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 Development, Vol.22, pp.239-248, 1996.
- [34] 김종운, 박성실,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pp.123-131, 2013.
- [35] 유승혜, “비서학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비서학논총, 제20권, 제3호, 2011.
- [36] 이희정, 김금미,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pp.650-672, 2010.
- [37] 정민, 노안영,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391-405, 2008.
- [38] 박용두, 이기학,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1041-1056, 2007.
- [39] S. Cohen and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 [40] 심응철, 전우병, 양돈규, “심리학과 생활,” 서현사, 2008.
- [41] 조혜정,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 pp.157-184, 2013.
- [42] 서인균, 이연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17-147, 2015.
- [43] D. L. Blustein,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5, No.3, pp.260-274, 1997.
- [44]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p.39, 2012.
- [45] 윤현희, *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6] 송현심, 홍혜영,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제11권, 제3호, pp.1325-1350, 2010.
- [47] 신정옥,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pp.109-141, 2012.
- [48] 이경선,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9] 조명실, 최경숙,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제8권, 제3호, pp.1085-1099, 2007.
- [50] 김종학, 최보영,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제24권, 제10호, pp.25-42, 2016.
- [51] 박지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2] 김수리,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53] 서경희, 광원준, 심지현,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취업진로연구, 제5권, 제4호, pp.57-88, 2015.
- [54] 김은영,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79-96, 2010.

- [55] 이성식,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56] 이은경, *진로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57] 탁진국, 이기학,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제1권, 제1호, pp.167-180, 2001.
- [58]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59] 황윤경,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60] 이은진,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6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62] L. S. Aiken and S.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1991.

저 자 소 개

임수진(Su-Jin Lim)

정회원



- 2007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위기상담, 진로상담,